

SKT, ICT 기술로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일자리 플랫폼 구축

SK텔레콤이 5G 시대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장애인 고용 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SK텔레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ICT 기반의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일자리 트렌드 변화에 맞춰 장애인들이 ICT 분야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생태계 관련 선순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SK텔레콤이 공동으로 기획해 온 '장애인 일자리 생태계 조성'의 적용 사례다.

SK텔레콤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맞춤형 IT 직무 전문



SK텔레콤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체결식 참석자들이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SK텔레콤

교육부터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연결, 취업 사후 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공단이 민간 기업과 장애인 일자리 구축 관련 파트너십을 맺는 첫 사례다.

또 양측은 오는 20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장애인 ICT 보조공학기기 공모전'을

공동 주관한다. ICT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의 업무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를 만들고, 관련 분야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참가 지원자는 내달 19일까지 관련 홈페이지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제주항공의 의도치 않은 의도



기지 수첩

김수지 (산업부)

'제주항공'이라는 구원투수를 만난 줄 알았던 이스타항공이 외려 파산 위기까지 내몰리게 됐다.

약 13년간 국내 항공시장에서 수많은 탑승객을 수송했던 이스타항공에 이제 단 3일의 시간만 남았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일(10명) 내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체불입금을 포함해 약 17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오는 15일까지 해결하라는 말이다.

이스타항공이 이같은 채무를 '데드라인'까지 갚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지난 3월 24일 이후 섣달을 유지 중인 이스타항공에는 직원들의 급여를 줄 자금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제주항공이 계약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는 이유다.

비량 끝에 선 이스타항공은 M&A까지 무산될 경우 파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회생

불능의 수준으로 치달은 이스타항공에, 제주항공은 "구조조정과 섣달을 지시 및 강제한 사실이 없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모든 것은 오롯이 이스타항공의 의지이자 선택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이스타항공이 파국을 맞게 될 경우, 제주항공도 일부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력갱생이 아닌 구조조정과 섣달을 택한 배경에 M&A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필승전략이라 믿었던 인수 합병을 위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포기하고, '섣달'이라는 초강수까지 썼다.

이런 가운데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상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피해를 제주항공이 책임지기로 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덜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하지만 제주항공의 '의도치 않은 의도'로 인해 이미 이스타항공의 직원 약 1600명은 설 자리를 잃게 됐으며, 한 항공사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끝내 M&A가 이스타항공이 택한 '최악의 한 수'로 남을지는 이제 제주항공의 손에 달렸다.

/sjkim2935@

LG전자, 의료진에 전자식 마스크 2000개 기부

마스크에 퓨리케어 청정기특허기술 담아

LG전자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위해 첨단 기술을 집약한 전자식 마스크를 선물했다.

LG전자는 10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전자식 마스크 2000개를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병원장, LG전자 에어솔루션사

업무장 이갑규 부사장, 대외협력담당 윤대식 전무 등이 참석했다.

전자식 마스크는 LG전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특허 기술 및 노하우를 담아 만든 제품이다. 교체 가능한 헤파필터 2개를 이용하고, 초소형 팬이 공기 양을 조절한다. 호흡시 발생하는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와 호흡 인지 알고리즘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공기량을 늘리고 내릴 때는 줄여준다.



전자식 마스크.

/LG전자

LG전자는 의료진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에도 전자식 마스크 기부를 검토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

오늘의 운세 7월 13일 (음 5월 23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주의 눈치를 보는 하루. **48년생** 가려는 사람은 붙잡지 마라. **60년생** 기대가 너무 커서 서운함도 크다. **72년생** 필요 이상의 의미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84년생** 매일 뜨는 태양도 누군가는 다시 보길 간절히 원한다.
- 37년생** 시작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49년생** 무리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행동. **61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지 마라. **73년생** 지치고 힘들 때 가족을 생각하고 힘내자. **85년생** 최소한 한 가지 일이라도 능통하면 된다.
- 38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50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 **62년생**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 **74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 본다. **86년생** 친구의 조언으로 힘든 일을 결정할 수 있다.
- 39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51년생** 조금 기다리면 좋은 결과 나온다. **63년생** 친척의 방문으로 근심이 쌓인다. **75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87년생** 판단력이 떨어지는 날이니 도장은 내일 찍자.
- 40년생** 원숭이따위 의견대립을 조심. **52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빨리 포기. **64년생**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76년생** 쌓아온 실력 발휘로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 **88년생** 한발 물러서면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
- 41년생** 바람이 불어와도 움직이지 마라. **53년생**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있다. **65년생** 기쁨과 근심은 마음먹기 나름. **77년생** 약속을 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하여 정리해놓자. **89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챙겨라.

- 42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은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54년생** 무리한 산행은 건강을 해친다. **66년생** 내가 믿음을 가져야 상대도 설득. **78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하다. **90년생** 주식거래 거품은 사라지고 아쉬운 날 남는다.
- 43년생** 최소한 당신이 모른다든 것은 인정하자. **55년생** 능력을 과신하다 실수를 한다. **67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 **79년생** 자식 자랑에 입이 침이 마를 지경. **91년생** 물을 두려워하면 수영선수는 곤란.
- 44년생** 힘내라는 말보다 실질적인 힘을 줘라. **56년생** 주황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68년생** 삼신이 피곤하니 재물은 들어오니 위로가 된다. **80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 **92년생** 적의 적은 동지.
- 45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 **5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행동을 조심. **69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낭비. **81년생** 개천에서 용이 난 형국이니 좋은 일이 있다. **93년생** 명예와 함께 축하도 받는다.
- 46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58년생** 자신의 약점은 가족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해야. **70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손가락 올리지 마라. **82년생**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94년생** 칭찬 받고 기뻐할 일이 있다.
- 47년생** 작은 것을 아끼려고 큰 것을 포기한다. **59년생** 진로수정은 신중하게. **71년생** 주변의 마음을 읽지 못해 고독하다. **83년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긴축재정이 필요. **95년생** 시간이 지나면 결심이 흐지부지되니 바로 시작하자.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3X4 몬스터스토쿠는 가로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정답

9	7	8	1	6	5	4	7	2
6	1	5	9	2	7	8	3	5
5	7	2	8	4	9	6	1	3
8	9	3	5	1	7	6	8	4
4	6	5	7	8	9	5	2	1
7	2	1	6	8	9	5	4	3
2	8	6	7	9	1	5	4	8
1	8	9	5	3	6	1	7	2
3	4	9	8	7	2	6	5	1
5	1	8	9	7	6	4	3	2
6	3	2	4	5	1	7	8	9
7	5	6	3	8	9	2	1	4
8	9	6	7	2	1	5	4	3
1	3	4	5	6	7	8	9	2

결합형 스토쿠 사무라이스토쿠 시리즈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s://sudoku365.net

김상희의四季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현재 경제상황은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거니와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부양을 위한 재정 풀기 등으로 당연한 위기를 넘겨가겠지만, 분명 재원의 조달문제 등으로 또 다른 역풍을 만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독에 물 붓기는 제2, 제3의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공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뭔가 조금이라도 더 가진 계층으로부터의 증세일 것이다.

미국의 존경받는 국부 중 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가진 칼, 그것은 바로 세금인 것이다. 저승사자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변호사와 세리라 하지 않았던가?

사람으로 태어나 복덕이 구축함은 무엇을 말할일까? 건강과 재물 화복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명예까지 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복을 갖추었다고 말한다. 덕까지 구축하려면 베품이 넉넉하다는 뜻이다. 나와 내 가족이 잘 사는 것은 나의 복이지만 나의 재물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덕을 베푼다는 뜻이 된다.

이것이 복덕이 구축하다고 하는 것이다. 많이 가져야만 베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왜 십일조라 했을까? 각자의 재물의 크기가 여타하던지 간에 자기가 소유한 것의 십분의 일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자신의 인색함을 털어내고 복이 되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재물의 다소로 이유 대지 마시라. 마음으로 배려하고 질사하지 않는 것도 덕을 베푸는 길이 될 것이며 복덕이 되는 묘약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약한 자에게 자애를 베푸는 그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자 천사의 나눔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48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89호